한마음 한몸

2014.03
통권 21호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특집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COVER STORY

© OBOS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야 합니다. '희망의 씨앗'은 우리의 이웃들과 내 마음속에서 큰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통권 21호 / 봄

한마음 한몸

발행인 유경촌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4년 3월

디자인 slowalk

문의 | 후원관리팀

T 02 774 3488 E obos@catholic.or.kr

CONTENTS

테마스페셜

03 한마음 한몸으로 _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04 SPECIAL STORY _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아주 특별한 경험

08 현장을 가다① _ **국경을 넘어, 대륙을 건너 함께 사는 세상으로**

10 현장을 가다② _ **마음은 또 깜뽕꼬 마을에 가 있습니다**

12 OBOS Family, 세계의 사람들 _ **미래를 꿈꾸는 스레이 씨네 여자 셋**

희망과 만나다

14 희망공작소 _ **자살예방 실천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16 OBOS Hope Maker _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공감하는 세상

18 **나눔가게·나눔기업에 참여하세요 나눔의 참 행복을 느껴보세요**

20 **생애첫기부**

NEWS +

22 OBOS NEWS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 마르코 10, 21 |

2014년 3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촌 | 디모테오 주교
© OBOS

†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부임한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마음한몸운동은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성체성사의 깊은 뜻을 깨달아 실제 삶과 연결시켜 생활로써 실천하려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마음한몸운동은 헌혈·장기기증, 입양·결연, 헌미헌금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표현하자는 근본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사업(해외원조), 생명운동, 환경운동(우리농촌살리기운동), 민족화해운동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환경운동과 민족화해운동은 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민족화해위원회 등으로 독립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 생명운동은 현재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약 50여 국에서 지구적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 및 인도적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구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단기로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띠앗누리 프로그램을 시행,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국가에 장기 국제자원활동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운동, 헌혈운동,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장기이식대기자 및 무료개안 진료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보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이상이 있듯이 20대 중반이 된 본부도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개인, 가정, 본당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한마음한몸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이사장으로 부임한 저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분들의 후원과 다양한 나눔 활동의 결과로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시고, 본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겨울 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지난 2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생명나눔 캠페인이 열려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죽으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없어질 장기. 세상 떠나는 날 자신의 장기를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자는 장기기증 캠페인에 이날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선물하게 될 장기기증 신청은 생명을 나누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실천 바로 그것이었다.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 제가 심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5주기를 맞아 생명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확성기에서는 그분의 뜻을 되새기는 울림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생명나눔 기운에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주최한 '2014 희망의 씨앗 심기' 캠페인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각막을 기증해 실명한 이들에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 것처럼, 고인의 뜻을 이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자는 범국민 생명나눔운동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당신 스스로 약속하셨고, 실천하셨던 장기기증은 그간 교회 안팎에서 장기기증의 열풍을 일으키며 생명나눔운동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왔다.

자녀가 장기기증 신청을 원해서 홍보 부스로 왔다는 한 어머니는 아이와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려는 아이의 행동에 기특해 했다. 아직 미성년자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신청서만 접수했지만 아이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장기기증에 동참하자는 봉사자들의 독려에 한 시민은 "이미 예전에 했어요"라며 수고하라는 인사를 건넸고, 또 어떤 이는 장기기증의 의미와 절차에 관해 자세히 묻기도 했다. 장기기증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던 한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 신청서를 작성했다. 주변 이웃이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 힘겹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실천하자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문화운동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장기기증은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시 선물로 주고 떠나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과 직결된 여러 가지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병이 심각해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를 건강한 장기로 바꿔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장기로 바꾸어 주는 것을 장기이식이라고 하고,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을 장기이식 대기자라고 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고로 뇌를 다치거나 병이 생겨 뇌의 모든 기능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뇌의 사망, 즉 뇌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허락하면 그분은 장기기증자가 되어 환자에게 장기 이식수술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상태에 임박한 뇌사자가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뇌사 상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우리가 죽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나눔이자 가장 소중한 나눔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만6천 명의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증자를 찾지 못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매년 8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순간의 장기기증 서약은 사후에 가족의 동의를 거쳐 생명의 꽃을 피우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씨앗'은 또 열매를 맺어 우리의 이웃들과 각자의 마음에서 희망의 나무로 거듭나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생명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정현수 센터장은 “오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을 그리워하면서 많이들 참여해주는 것 같다.”면서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도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기기증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죽음을 앞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펼치고 있는 장기기증운동은 뇌사 시 장기기증과 사후 안구기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뇌사 기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8.4명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희망자가 2006년에는 9만 여명이다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2008년에는 7만 명대를 겨우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다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 각막 기증이 알려지면서 18만여 명 넘게 급증했지만, 5년이 지난 요즘, 관심이 옅어져 장기기증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현장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정성환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의미를 이 세상에 실천하자”고 했지만 요즘 나눔의 가치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 생명을 가벼이 여겨 사람들의 삶이 희망을 꿈꾸기보다 절망에 빠지게 된다며, 낙태와 자살도 생명경시풍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 모두 이러한 캠페인을 계기로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동참하여 새로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신부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과 나눔의 의미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향후에 본부는 청소년 대상 캠페인을 더욱 확산할 것이라 덧붙였다.

“뇌사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보부스에서뿐 아니라 매시 정각에는 명동 거리 곳곳을 행진하는 거리 캠페인이 실시되었고, 오전 12시가 지나자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욱 많아졌다.

함께 거리 행진을 한 후, 부스에서 소리 높여 장기기증을 홍보하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홍보대사 양미경씨는 “원석이 세공이라는 행위가 있어 보석으로 빛을 발하듯, 나눔도 마음을 넘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자신과 세상을 빛낼 수 있다”며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바랐다. 그러면서 홍보 캠페인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리길 희망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손애경 마리잔느 수녀도 장기기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장기기증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생각해볼 기회가 되지요. 살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잠시 머물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의미 있는 일이죠.”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기증 상담과 희망 신청을 받으며 현장 접수자들에게 메시지가 적힌 에코팟(메시지콩 종이화분)을 기념으로 선물했다. 또 김수환 추기경의 등신대를 설치하고 포토 존도 운영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생명나눔 글이 적인 피켓을 들고 가족과 친구와 또 추기경과 기념사진을 찍고 행복해했다.

앞서 12일~13일 이틀간은 서울성모병원 본관 로비에서도 캠페인을 열러,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기증 신청을 받았다. 캠페인 기간 동안,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하는 추모미사와 간을 이식받은 환자들로 구성된 ‘서울성모병원 간이식동인회’의 음악회도 열렸다.

장기기증 Q&A

Q 내가 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뇌사 시 기증과 사후 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사 시 기증**은 신장, 간장, 폐, 췌장, 소장, 각막이 기증되며, **사후 기증**은 각막만 가능합니다. 각막 기증은 사후 6시간 이내에 연락을 주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Q 기증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미성년자는 기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생전에 등록했어도 사후에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은 법적 책임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Q 생전에 병을 앓았던 사람도 기증이 되나요?

A 장기의 이식적합성은 전문의사와 기증 예정자의 현재 상태 및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구 기증은 근시, 난시 등으로 안경을 착용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단, 매독, 패혈증, B형 간염 등 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Q 장기기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본인 확인 후 취소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Q 장기기증관련문의는?

A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 ☎1599-3042

“한사람의 사랑이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꾼다”

–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 –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김수환 추기경은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삶은 빈껍데기”라고 실천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 하시며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반성과 회개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201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개발 협력사업 현황

국경을 넘어, 대륙을 건너 함께 사는 세상으로

풍요의 현시대에 믿기 어렵지만 여섯 명 중 한 명은 하루 1달러 이하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본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부는 일회적 지원을 지양합니다.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온전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룰 수 있게 도우며, 되풀이 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지향합니다. 이에 현지 주민의 역량강화를 돕는 사업,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발전을 증진하는 사업, 성 평등 및 환경보전을 고양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신 사랑으로 지구촌 곳곳 가난한 이웃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 커다란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

사업국	사업명	사업내용 요약
⊕ 캄보디아 Cambodia	여성의 자립과 지역사회 개발	캄보디아 프레이벵(Prey Veng)의 참(Cham) 공동체의 역량강화 ①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한 농촌여서의 사회활동 촉진 / ② 빈곤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을 통한 문맹률 감소 / ③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
	HIV·AIDS 보균자의 사회 – 경제적 재통합 및 빈곤퇴치	가난한 에이즈 보균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식량 및 주거 지원,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몬둘끼리(Mondol Kiri) 및 바탐방(Battambang) 주(Province)의 지역개발	캄보디아 두 지역의 마을 지역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의 농업기술 훈련, 생계지원, 식수 및 소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보건 및 의료와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각 마을의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재해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법 훈련 지원
	지체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KOICA 지원사업)	장애인들에게 농업, 목공예, 전자, 기계, 재봉, 창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제공, 사회적응을 돕는 공동체 생활 지원 및 후속관리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자신감과 인간 존엄성 회복 지원
⊕ 미얀마 Myanma	피냐산애(Pyina Sanyae) 교육기관의 교사훈련 프로그램	9개월간의 훈련으로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
	기숙사 학생 생계지원	학교를 다니기 힘든 아이들에게 기숙사 제공 및 생계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생계 프로그램 및 재난 예방·대응	어업 및 농업 종사자에게 소액 대출을 통한 생계지원 및 재난위험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라우투(Lautu) 지역사회 개발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교육 지원, 소득창출 프로그램 실시, 의료보건 및 서비스 제공 등 마을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지원
⊕ 파키스탄 Pakistan	파키스탄 푼치(Poonch) 지역 내 직업기술 및 농업훈련을 통한 여성 자력화	여성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재봉, 재단, 전통자수 및 기계자수 등)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의료보건센터	파이살라바드(Faisalabad) 지역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건센터 운영을 통하여 의료보건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에 의료지원 프로그램 지원
⊕ 케냐 Kenya	경제적 자력화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확장지원 사업	경제 자력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확장하는 교육 실시, 식수·위생, 영양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 프로그램 지원
⊕ 홍콩 Hong Kong	정의 및 평화를 위한 핫라인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등에서 부정의한 사건에 대응하는 정의, 평화 문제와 관련된 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과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지원
⊕ 몽골 Mongolia	울란바타르(Ulaanbaatar)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KOICA 지원사업)	울란바타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다양한 언어 교육 및 지구시민연대 교육 실시, 여대생 기숙사 제공 및 다양한 청소년 교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 베냉 Benin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제빵·제과 프로젝트 – 'Panem Nostrum' 제과·제빵점 건설	보이콘(Bohicon) 지역 내 'Panem Nostrum' 제과·제빵점을 건설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영양가 있는 빵 생산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창업교육 및 제과·제빵기술 훈련 프로그램 지원
⊕ 방글라데시 Bangladesh	학교 및 기숙사 보수 지원	마이멘싱(Mymensingh) 지역의 낡은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아이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아이티 Haiti	아이티 지진피해지역 학교 개건 사업	아이티 대지진 피해로 붕괴된 10개 학교 건축 및 건축된 학교의 교구 및 기자재 지원

캄보디아
작은 마을
깜뽕꼬에서의
14박 15일

마음은 또 깜뽕꼬 마을에 가 있습니다

"We are happy to meet you. Thank you for helping our church. I will meet you in my pray. May God Bless You."

"우리는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교회에 주신 도움에 감사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신의 은총이 있기를."

– 깜뽕꼬 마을 친구의 편지 –

구다모 | 띠앗누리 17기 캄보디아의 깜뽕꼬는 나의 첫 해외 봉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짧고도 긴 여정 14박 15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위해 갔지만 마을입장에서 보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식량도 부족한 작은 마을에 18명이 함께 갔으니까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서자 그들을 돕기는커녕 내 몸을 챙기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누어줄 마음도 가난했습니다. 서먹한 느낌 때문에 마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고, 작업을 할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실수를 연달아 했습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볼 때면 이곳에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마을주민과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받기만 할뿐 빚진다는 생각만 커지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친구에게서 꽃과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베풀고자 했던 나의 섣부른 마음, 그리고 마음은 닫은 채 아이들과 소통한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눔을 행하기 위해선 물질보다 정성어린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느꼈고,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들과 진정한 마음의 대화를 하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친구들이 캄보디아 사람 같다며 놀렸지만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깜뽕꼬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단어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겠지요. 사랑은 마르지 않는 하느님의 포도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껴두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자신의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겠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다."

–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나며 | 박노해 –

한세라 | 띠앗누리 17기 오리엔테이션과 4번의 배움터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더니, 5시간의 비행 끝에 프놈펜 공항에 발을 딛고 나서야 비로소 띠앗누리 17기의 일정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장애인 재활 직업학교 '반티프리업'에서 지낸 후, 열흘 동안 머물 깜뽕꼬 마을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깜뽕톰으로 이동했습니다. 깜뽕톰에서 깜뽕꼬마을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가로질러 가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경운기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경운기가 고장 나 작은 소동이 벌어졌지만 마음씨 좋은 현지인을 만나 도움을 받았고, 수리하는 동안 우리들은 그늘이 있는 시원한 집에서 쉬면서 짧게라도 익혔던 크메르어로 대화를 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깜뽕꼬에서 처음으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꽃을 들고 우리를 기다린 학생들이었습니다. 환영의 꽃다발을 주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들을 만나니 마음이 이내 따뜻해졌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깜뽕꼬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볼 때는 이전에 이곳을 다녀간 기수들의 손길도 느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17기의 손길도 남겠지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벽화 작업, 성당 옆 보도블록 깔기, 문화교류 등이 주된 활동이었으며, 주말에는 도시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마을 청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볕 아래서 보도블록을 깔고,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페인트칠을 하며, 또 서로 안아달라고 달려오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체력이 바닥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밤 모기떼와의 씨름으로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같이 쓰는 단원들과 함께 하는 저녁기도, 형광등이 없는 방에서 랜턴에 의지하여 하루를 정리하며 쓰는 일기, 새벽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매일 우리를 위해 그린 그림이나 편지들을 가지고 오는 마을 아이들…. 그 모든 것은 나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단원들과 함께하는 떼제기도는 바쁘게 보내느라 기도가 뒷전이었던 나에게 하루를 마치며 매 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웃고 또 울기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단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과 따스함을 내게 주었습니다. 깜뽕꼬에서의 '사랑여행'을 마치고 나니, 나에게는 예쁜 여동생이 생겼고, 멋진 일몰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우정을 쌓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14박 15일 동안 희로애락을 나눈 14명의 띠앗누리 17기 단원들과 스태프들 모두가 내겐 소중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깜뽕꼬는 나에게 이런 소중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7기는 청년, 빈곤, 인권, 환경을 주제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지난 2월 4일~18일 14박15일 동안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 및 깜뽕꼬 마을에서 현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단원 14명과 스태프 4명은 그곳 현지 주민들과 마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깜뽕꼬 유치원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의 사람들
스레이 씨네 가족

미래를 꿈꾸는 스레이 씨네 여자 셋

34살 스레이(Srey) 씨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그녀는 청각 장애와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15살의 딸 스레이 릭(Srey Leak)과 고혈압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셋이 사는 그녀의 가족은 오우(Ou)마을 (Ponley Commune, Boribor district, Kompong Chhnang Province)에서 대나무와 야자 잎으로 만든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레이 씨의 남편은 딸이 1살이었을 때 새로이 가정을 꾸려 집을 떠났고, 그때부터 스레이 씨는 딸과 엄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식량이 부족해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릭은 태어나 두 살이 될 때까지 별다른 병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세살이 되던 무렵, 심한 복통과 고열로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몸 상태에 관해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릭에게 세 개의 물약만을 처방하고 삼일 간 먹으라고 했습니다. 릭은 약을 복용하고 점차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듣고 말하는데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레이 씨는 딸의 상태를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단지 성장이 느리겠거니 했습니다. 그 때문에 NH(New Humanity) 스태프에게도 병에 관한 처방기록을 자세히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릭은 엄마가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크게 소리만 질러대곤 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위생 상태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고 스레이 씨는 몸의 문제라 생각지 못하고 릭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여겼고, 훈육을 위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학교를 그만두게까지 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그녀의 가족은 NH에서 실시하는 LSI(Livelihood Social Integration) 사업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릭은 지능, 사회성, 감성 발달을 위해 복지사들에게 특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손짓 발짓 등 몸짓으로 릭에게 타인에 대한 예절과 개인위생,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스레이 씨에게도 가족 간에 서로 돕고 나누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릭에게 청소 등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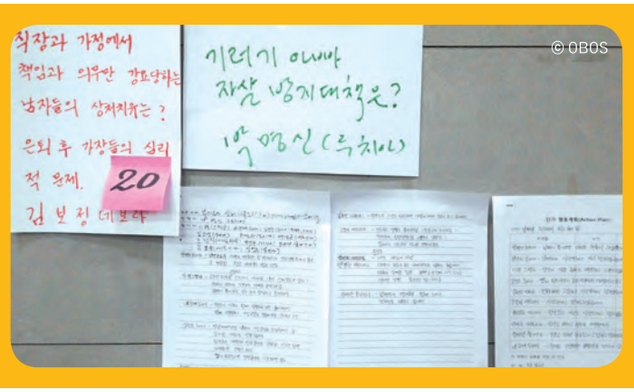
처음엔 사회복지사들이 릭과 신체 언어로만 소통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릭은 점차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이 생기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것도 반복하여 교육한 끝에 릭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소통의 물꼬를 튼 릭은 바느질도 배우기 시작했고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씩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러 기술을 배워 나갔습니다.

한편, 단체는 스레이 씨의 가족에게 매달 20kg의 쌀을 지원했습니다. 또 스레이 씨에게는 양계 기술을 익히게 하면서 집에 작은 농장을 꾸리기 위한 재료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릭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6개월이 지나 2012년 말부터는 릭의 행동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던 행동은 사라지고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집안일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가족 간의 대화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013년이 되자 스레이 씨네 가족의 위생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져 청결한 집안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집 주변 청소하기, 잘 씻기, 그리고 물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지원한 식수 필터도 깔끔하게 관리하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제 스레이 씨는 딸이 설령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해도 매로 다스리기 보다는 따뜻한 말과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바로 잡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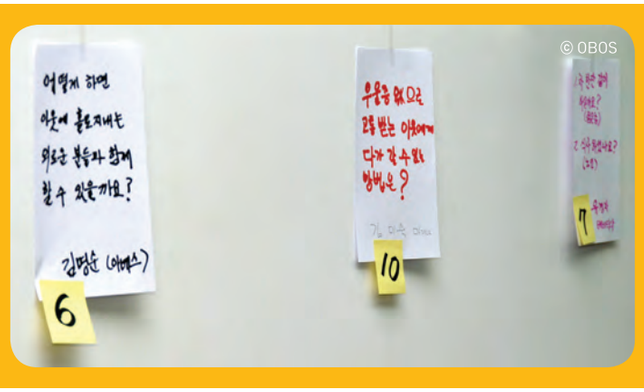
스레이 씨네 가족을 NH가 지원한지 어언 1년. 그녀의 가족은 충분한 먹을거리, 개선된 생활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변화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찾게 해준 도움에 감사하며 농장을 가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 소득의 원천인 농장에는 약 30마리의 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캄보디아 현지단체인 NH(New Humanity)와 함께 캄퐁츠낭(Kompong Chhnang) 지방의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가정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며, 장애인 가정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업 기술훈련(벼, 천연비료 관리, 채소 농장관리, 가금류 사육, 어업, 축산 농장 관리 등)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OBOS

© OBOS



© OBOS

© OBOS

한마음한몸 One-Body One-Spirit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실천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자살예방법을 고민하다

"일반인들도 자살예방 교육을 받고, 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벌이와 부모 이혼으로 방임되고 있는 아이들을 찾고,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면 좋겠어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센터장 손애경 수녀)는 2월12일(수)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중서울 레지아 꾸리아 간부 50여 명과, 그리고 2월26일(수)에는 서울 구파발성당 신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주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틀과 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끝에, 앞으로 6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실천하자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이라는 주제 아래 ★왜 자살을 할까? ★무엇 때문에 외로울까? ★방임된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까 등의 다양한 소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소주제 중 많은 공감대를 얻은 '방임된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의 행동계획으로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집 주위에 배회하는 아이들에게 관심 보이기, ★성당 안에서 청소년들 모임을 만들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한 그룹에서는 ★우울증 앓는 친지와 식사하기, ★친정엄마 만나러 가기, ★도움 요청 시 즉시 달려가기, ★기도를 통해 어려운 이웃 생각하기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채영(크리스티나·서울 송천동본당)씨는 "자살이 먼 이야기라고만 여겼는데 나라면, 또 내 아이들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관심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며 "집에 돌아가 가족들도 한 번 더 안아주고, 본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이웃에게 관심 갖는 시간을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봉사자로 토론에 참석한 대학생 이지연(26)씨는 "자살을 생각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고민을 카페 게시판에 올렸고 며칠 새 3,000개가 넘는 댓글에 힘을 얻어 새 삶을 시작했다."며 젊은이들은 온라인 카페 활동을 통해서도 또래에게 힘을 얻고 또 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센터장 손애경 수녀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여 신자들이 자신의 생활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자살예방활동이 전문가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면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이날 토론에서 언급된 의견을 수합,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중서울 레지아 꾸리아와 지역 정신보건센터, 서울 구파발성당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 예방 주민 토론회 참가자들이 전하는 자살예방 실천지침

- 내 아이에게 사랑 표현하기
- 성당에서 청소년 모임 만들기
- 주위에 배회하는 청소년에게 관심 두기
-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 일주일에 1~2번 이상 대화하기
- 대자녀 돌보기
- 음식 만들어 이웃과 나누기
- 가족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인사하기
- 모임 등 공동체와 멀어진 이들에게도 안부 전하기
- 대화 상대 돼주기
-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 두기
- 외로워하는 어르신에게 말 걸기
- 힘들어하는 이에게 상담전화나 상담소 안내해 주기
- 소 공동체 모임 때 자살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 소외계층 방문 및 이야기 들어주기
- 웃음으로 이웃 대하기
-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즉시 응하기
- 우울증을 겪는 이를 선입견 없이 따듯하게 대하기
-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 인터넷으로 희망 댓글 달아주기
- 자살예방 관련 교육 참여하기

* **오픈스페이스란?** 북미의 조직 전문가 해리슨 오웬이 커피 브레이크에서 영감을 얻어 창안한 것으로, 틀과 격식을 벗어난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의 방법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지구시민교육

Q "지구시민이 뭐예요?"

A 여러분은 아직도 세계가 혹은 지구촌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세계와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지구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이라고 불리던 이들도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어민 영어선생님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 이들은 이제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Q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해 볼까요?"

A 유명 골프선수는 특정 상표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하루에 몇 천만 원을 벌지만, 그 모자를 만드는 태국 노동자들의 일당은 몇 천원에 불과합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선진 국가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최빈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지요, 또 누군가는 몇 천 원짜리 약을 사지 못해 죽음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이웃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몇 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Q "지구시민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A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열린 사고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통합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길러, 지구촌의 빈곤, 교육, 물 부족, 재난, 환경, 평화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관심과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지구공동체의 일원인 이웃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Q "지구시민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 **지식과 이해**: 세계화의 원인과 과정, 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연관성, 지구촌 이슈(빈곤, 인권, 환경 등)
- **가치와 태도**: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동적이고 참여적 태도, 지구시민으로서의 자의식 형성
- **실천과 행동**: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구시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신청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촌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시민이 되어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구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 **인원**: 단체(20명 이상)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 **문의**: 02 727 2287, obos.caritasseoul@gmail.com

지구시민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지구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먹은 햄버거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지구 전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 OBOS

언북중학교 지구시민교육
홍보 포스터 제작: '햄버거 소비가 지구촌의 빈곤,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 OBOS

언북중학교 지구시민교육 | 다짐을 적은 종이로 만든 생명의 지구나무

© OBOS

언북중학교 지구시민교육 | 조별활동

© OBOS

계성여고 지구시민교육

© OBOS

계성여고 지구시민교육 | 조별활동

나눔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2014 사랑 프로젝트

나눔가게·나눔기업에 참여하세요
나눔의 참 행복을 느껴보세요

나눔가게·나눔기업 이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고객들의 성금을 전달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 및 기업을 말합니다.

· 가게와 기업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 가게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나눔가게·나눔기업을 신청해 주시면 전용 저금통과,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1년 이상 정기적인 후원하신 가게·기업, 또는 연간 1천만 원 이상 기부하신 가게·기업이 되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가게·나눔기업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선정되신 나눔가게·나눔기업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의
사랑·나눔 방법

· 매출·수익의 일정액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합니다.
· 고객들이 저금통에 넣어주신 성금을 전달해 사랑 나눔 바이러스를 전파시킵니다.
· 따뜻한 실천사례를 전해주시면 본부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하여 나눔가게·나눔기업을 홍보해 드립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1-166291〈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 727 2263

공감하는 세상 | 나눔가게·나눔기업

1	서울 은평구 수색동 미성슈퍼	44	서울 광진구 중곡4동 호프나라	88	부산 해운대구 채송2동 린포크 장터국밥
2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손헤어	46	부산 동구 초량3동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89	서울 금천구 독산3동 만승웰팅기
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48	서울 노원구 중계동 우리마음심리상담소	90	경기 화성시 동탄1릉동 김지영헤어
4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주)이피코리아	49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하층 삼성상회	91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별난횟집
5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이미지넷	50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송월타월 대상대리점	92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JARED LUTHER 어학원
6	서울 종로구 필운동 (주)계문사	5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느낌 좋은 집	93	경남 김해시 외동 이가네우미머리끈
7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예담명가	52	강원 강릉시 포남동 포남세탁소	94	서울 중랑구 면목5동 다연마트
8	인천 동구 송림동 참사랑성물	53	부산 동래구 수안동 시은사	95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제이피유커뮤니케이션 파트너
9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54	부산 동래구 수안동 (주)타비스 애니자임	96	서울 강서구 방화동 우리집강아지
10	서울 강남구 수서동 (주)무원 NB건축사무소	55	경북 구미 황상동 떡뽁기카노	97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신성건축 디자인
1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로사리오	56	경북 울진 북면 부구리 원자로 식당	98	경기 광주 오포읍 무공이네 광주 오포점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57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옥상위의 고양이	99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KIN스킨 수미생화장품
13	성남 분당구 서현동 소운 정신과의원	58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하늘콩볕콩	10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송화정
14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59	대구 동구 신암5동 숯과 황토	101	대전 동구 성남동 베르사체 호프집
15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6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로아쥬스	102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파워라인
16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명산	61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취중천국	103	경기 의왕시 왕곡동 캉페 샤인
17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장어대가	6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율리아나 웨딩	104	경북 경산시 대평동 통돼지무쇠 활어구이
18	서울 마포구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63	서울 관악구 행운동 경희부부한의원	105	전남 목포시 옥암동 맛나감자탕 목포점
19	서울 강북구 수유3동 토마토 도시락	64	수원 영통구 원천동 까페플로린	106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마레 레스토랑
2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할인마트	65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땡큐곱창	107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종각집
21	전남 여수시 화장동 푸른농장2호	66	인천 서구 마전동 원 인테리어	108	충남 서천군 장하읍 신창리 장항삼성의원
22	전남 여수시 소라면 중림리 푸른농장 중림점	67	천안 서북구 성환읍 영농조합법인 은성가족식품	109	인천시 동구 송현동 홈플러스 송현점
23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태영프라자 약국	68	안산 단원구 원곡동 해피텔레콤 안산점	110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미노커피
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고리의 영어학원	69	서울 용산구 청파2가동 광명사진관	111	서울 서초구 신원동 산밑에누구
25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하티헤어	70	서울 관악구 성현동 누리에헤어	112	대구시 중구 동성로 화담
26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인공 개봉센터 공부습관트레이닝 센터	71	부산 북구 덕천동 The Sara	113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포엘 ancu
		72	천안 원성동 파리포송제과점	114	충남 당진 석문면 교로리 면천추어탕
27	서울 강동구 고덕동 미리암 약국	73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아남정보기술	11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솔 외대 구내 문구점
2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국매점	74	서울 양천구 목4동 안경매니저 신목중점	116	서울 은평구 신사동 주연미용실
29	서울 중구 명동 주날개밑	75	서울 강서구 양천로 아름다운재가센터	117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성모정형외과
3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솔도시락 포항 문덕점	76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해법논술 야탑목련교실	118	경기 성나미 수정구 신흥동 라파엘외과
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오색떡집	77	경남 함안군 칠원면 타이어마트/세차장	119	서울 성동구 성수2가 한양루마엄완식내과
33	서울 구로구 개봉2동 두덴호프	78	서울 마포구 대흥동 베스트스토어	1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베이비벨
34	서울 송파구 석촌동 김민헤어테크	79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원 부동산	121	서울 관악구 중앙동 인스토어
35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가마솥보신탕	80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참살이돈타령	12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모텔카사
36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젤리 성물방	81	서울 서대문구 염천동 독립문치과	123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엘리트그립코리아
37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82	서울 강동구 암사3동 사계절 피부샵	1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랩지노믹스
38	대구 동구 지묘동 아숨심리치료센터	83	서울 종로구 인의동 보나젬	125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이스생명보험
39	서울 마포구 신수동 코코가츠	84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연세내과의원	126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원자프라자약국
40	서울 종로구 광희동 다모아편의점	85	서울 송파구 잠실동 농협안심축산물 잠실점	127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지미디어
41	서울 금천구 시흥동 로사나눔터	86	경기 화성시 북양동 쓰리디엠디		
42	서울 금천구 시흥동 우리피부비뇨기과	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매덕동 우연치킨닭강정		

생애첫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에 드는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아기의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념일 기부

'건강하게 한 해 잘 자라줘서 고마워!' 첫기부에 이어서 꾸준히 생일 때마다 두번째, 세번째 기부를 합니다.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등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아이 이름이 적힌 후원 증서를 안겨주면 자연스럽게 '나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기억나지 않는 장난감이나 옷 선물을 받은 것보다 1년에 한번씩 기부할 때 받은 감사장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아이는 부모님보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2014년도 봄호 |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

강건우	2013.01.11生 父 강성민 母 김고운
강민준	2013.02.10生 父 강봉진 母 김선애
강시우	2013.01.11生 父 강성민 母 김고운
고기윤	2013.10.30生 父 고성남 母 조영아
고한서	2013.02.05生 父 고영호 母 윤지하
국해솔	2013.02.19生 父 국광민 母 윤사라
권민서 다미아노	2012.12.06生 父 권영준 母 윤진주
권서준	2013.01.30生 父 권혁장 母 조수연
권윤영	2013.01.08生 父 권상열 母 김현애
김규림 아셀라	2008.09.09生 父 김세환 母 박수정
김나윤 레아	2010.08.23生 父 김정년 母 박보나
김동하 사도요한	2010.12.04生 父 김현중 母 이주연
김레아 레아	2013.02.22生 父 김현수 母 김혜영
김민서 노엘라	2006.01.02生 父 김진욱 母 이세은
김민석	2012.12.27生 父 김성훈 母 정효주
김민우 요셉	2012.04.23生 父 김진욱 母 이세은
김민재	2013.10.15生 父 김원일 母 추기정
김민진 가브리엘라	2008.12.15生 父 김성훈 母 정효주
김서연 클라라	2013.02.01生 父 김석주 母 오주경
김소민	2012.12.31生 父 김두성 母 이수현
김시우	2013.01.08生 父 김종보 母 백소연
김예원	2010.08.28生 父 김영후 母 서현희
김재민 라파엘	2011.08.08生 父 김화중 母 박수진
김재원 미카엘	2011.08.08生 父 김화중 母 박수진
김준서	2012.12.26生 父 김승환 母 신태경
김지윤	2011.12.22生 父 김재성 母 이서진
김지환	2013.02.06生 父 김성호 母 최슬기
김지후	2013.10.15生 父 김훈남 母 박진영
김해담	2013.10.10生 父 김기범 母 차희경
김해솔 소피아	2010.10.07生 父 김민섭 母 이현주
김해은 세례자 요한	2013.01.21生 父 김경운 母 박은선
김해인 비비안나	2013.02.21生 父 김민섭 母 이현주
김혜림 아나스타시아	2010.09.01生 父 김세환 母 박수정
김효주 아네스	2002.04.29生 父 김요한 母 이현화
나지환	2013.11.14生 父 나준상 母 배성은
나태경 요한	2012.10.28生 父 나상구 母 김지선
남승연 로사	2013.02.12生 父 남상준 母 유지형
도서율 가브리엘	2012.10.24生 父 도경우 母 강문영
맑음바름	2014.01.02生 父 채수원 母 조영신
문진서 글로리아	2013.01.04生 父 문　찬 母 최안영
문채원 안젤라	2006.02.03生 父 문준환 母 조지연
문하진 가브리엘	2013.01.17生 父 문상수 母 최지영
문형빈 알베르토	2005.04.05生 父 문준웅 母 현정원
박마루 안드레아	2013.01.07生 父 박종인 母 이현희
박상우	2013.02.04生 父 박영순 母 조혜정
박상현 사도요한	2000.09.07生 父 박성호
박서준	2005.04.28生 父 박광진 母 박봉정
박승혁	2012.12.25生 父 박종흥 母 서민정
박유찬 프란치스코	2012.10.26生 父 박경근 母 이지현
박윤슬	2013.01.28生 父 박대민 母 정경화
박준성	2012.10.22生 父 박승호 母 김경순
박준현 디모테오	2012.01.31生 父 박종연 母 김정은
박지원 안나	2008.08.06生 父 박광진 母 박봉정
박채아	2013.02.17生 父 박영남 母 유진희
배준혁	2012.12.20生 父 배경오 母 정명주
백다은 모니카	2013.01.10生 父 백정현 母 서지원
벼슬	2013.12.04生 父 이진호 母 조갑희
변서준	2013.06.17生 父 변웅수 母 정지은
성하윤	2013.03.08生 父 성만규 母 허유현
손가별 가브리엘라	2011.12.29生 父 손진수 母 신동희
손지민	2012.12.15生 父 손용현 母 오현진
송승주 비오	2013.09.19生 父 송양우 母 조순옥
신소윤	2013.02.22生 父 신용석 母 이미정
신준이	2013.03.13生 父 신영현 母 조세영
안이현	2013.01.27生 父 안채혁 母 장효정
양민혁 라파엘	2013.10.18生 父 양동구 母 양선연
오다인 안나	2012.09.17生 父 오상무 母 하미선
오재인	2013.03.12生 父 오동욱 母 이미진
오훈석 마르티노	2012.06.21生 父 오강혁 母 박지혜
유새미 크레센시아	2001.06.15生 父 유선환 母 김미선
유예서	2013.10.04生 父 유형수 母 김재영
유은찬	2013.01.07生 父 유성호 母 김은영
윤문형 베르다	2012.11.02生 父 윤정원 母 이경민
윤현서	2013.01.15生 父 윤인수 母 오선형
이나연	2013.09.04生 父 이은오 母 전지영
이도연	2013.09.21生 父 이승호 母 손지애
이도현	2012.08.08生 父 이순동 母 김은영
이민서 아녜스	2013.01.02生 父 이진만 母 박효선
이서후	2012.12.21生 父 이준모 母 성혜정
이수린	2011.07.24生 父 이형석 母 이영주
이승연 아녜스	2013.01.10生 父 이　환 母 김해숙
이승현	2013.01.10生 父 이진우 母 배정화
이시온	2012.12.01生 母 안유진
이은새 아델리나	2012.10.16生 父 이주현 母 김혜진
이은우	2013.01.04生 父 이준헌 母 노민경
이은재	2013.01.16生 父 이태구 母 문선애
이준영 요셉	2004.03.18生 父 이종화 母 김경희
이태린 이사벨라	2013.02.02生 父 이 크리스토퍼 母 이보경
이태선	2013.01.09生 父 이성호 母 강미선
임소윤 릴리아나	2012.12.18生 父 임진규 母 엄영경
임시헌	2012.12.10生 父 임대윤 母 김재은
임시후 대건 안드레아	2013.09.20生 父 임재민 母 김미화
임찬솔 프란치스코	2013.02.13生 父 임동철 母 전지영
장동하 다미아노	2013.02.26生 父 장동훈 母 윤수진
장민서	2013.09.09生 父 장성용 母 오경숙
장수백 프란치스코	2012.10.23生 父 장성윤 母 박선정
장호영 다윗	2012.12.19生 父 장보길 母 정혜원

두번째 기부

전승근 살레시오	2013.01.23生 父 전기수 母 곽미순
정가현	2012.01.13生 父 정규진 母 이인섭
정시윤	2014.01.21生 父 정대영 母 윤슬기
정연우	2012.01.28生 父 정재광 母 홍지숙
정유진 카타리나	2013.02.13生 父 정준후 母 이안나
정인우 이냐시오	2011.09.29生 父 정진혁 母 이보영
정태영 토마스 아퀴나스	2013.01.04生 父 정성준 母 이　진
정택민	2012.12.12生 父 정황호 母 김민지
조경원 루치아	2012.12.09生 父 조승윤 母 임소연
조민재 미카엘	2013.01.14生 父 조준일 母 진민경
조서후 바오로	2012.11.27生 父 조낙기 母 조선미
조승연	2012.11.27生 父 조남현 母 이주현
조승현	2013.02.09生 父 조재원 母 최보영
조유민	2012.11.25生 父 조용욱 母 김인선
조윤기 보나	2011.09.19生 父 조승훈 母 이종란
조은기 리나	2011.09.19生 父 조승훈 母 이종란
조재윤	2012.06.07生 父 조성묵 母 나정원
조찬영 스테파노	2012.12.26生 父 조원제 母 이주연
조화이	2012.06.09生 고모 조미영
주민재	2012.10.22生 父 주영조 母 김혜진
주영준 베드로	2012.09.15生 父 주성진 母 송정환
지서윤	2013.02.11生 父 지대현 母 이기랑
차연서	2013.01.08生 父 차주환 母 김은영
차윤우 테오도로	2012.12.01生 父 차성민 母 장진아
채지호 보나	2010.12.13生 父 채정길 母 강정윤
최선형 베드로 다미아노	2013.02.15生 父 최재혁 母 현예진
최은서	2013.01.24生 父 최재석 母 김성실
최지인	2012.01.29生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최태경	2013.01.25生 父 최창우 母 김소희
편서준 라파엘	2013.04.28生 父 편상연 母 김미림
표승혁	2013.03.03生 父 표대현 母 이주현
하정우	2013.02.07生 父 하용수 母 김규옥
한정원	2013.02.14生 父 한대성 母 이상하
현가온	2013.02.07生 父 현중재 母 오　현
홍시아	2013.01.23生 父 홍성민 母 지혜민
홍정훈	2013.10.06生 父 홍석찬 母 김수연
황연재	2012.11.30生 父 황찬해 母 변명지
황은재	2012.11.30生 父 황찬해 母 변명지
황준우 프란치스코	2011.11.25生 父 황대웅 母 오수민
황지아 스텔라	2013.02.01生 父 황재승 母 임현선

세번째 기부

권나윤	2011.12.15生 父 권광호 母 김선영
김나율	2012.11.02生 父 김정년 母 박보나
김동륜 안토니오	2011.01.17生 父 김현욱 母 한주희
김이수	2013.01.29生 父 김도현 母 문수아
김지안 잔다르크	2012.01.29生 父 김태한 母 박혜영
김지훈	2011.12.04生 父 김남성 母 이예리
김태희	2012.01.06生 父 김주희 母 이현선
김혜주 글라라	2003.11.12生 父 김요한 母 이현화
남도연	2012.12.25生 父 남정호 母 이진희
문규림 크리스티나	2012.02.09生 父 문현기 母 박미선
민세윤	2012.02.13生 父 민정재 母 이선영
박신우 바르나바	2013.01.11生 父 박영준 母 안영현
박은우 안셀모	2010.04.22生 父 박영준 母 안영현
변근호 그레고리오	2011.09.14生 父 변준석 母 차혜영
봉하준 라파엘	2011.12.21生 父 봉민구 母 조희주
송지우 노엘라	2012.12.25生 父 송상현 母 신성은
송효주	2013.09.03生 父 송충현 母 김지연
오승우	2012.02.15生 父 오세훈 母 송지혜
유건민	2010.02.25生 父 유형석 母 이지원
유효린 마리아피아	2012.01.30生 父 유태곤 母 박소정
이수담 아녜스	2012.01.22生 父 이상환 母 조경희
이신혁	2010.12.21生 父 이현규 母 구혜경
이우찬	2012.01.18生 父 이성수 母 김무희
이유하 프란치스코	2012.02.21生 父 이태양 母 김지인
임지유 아녜스	2012.01.31生 父 임경권 母 이정선
정태윤 바오로	2012.02.13生 父 정대영 母 윤슬기
정호윤 사무엘	2012.01.29生 父 정철우 母 권현아
홍준기	2012.01.13生 父 홍성철 母 변정연

네번째 기부

박성빈	2010.02.10生 父 박동현 母 정미영

다섯번째 기부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生 父 정찬호 母 조은모
천승민 베드로 다미아노	2011.02.21生 父 천정우 母 강재민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서재혁 라파엘, 박은영 세실리아	2012.04.28 결혼기념
알렉스 알렉스, 김선아 실비아	2013.02.02 결혼기념
이서훈 토마스, 김영신 안젤라	2013.03.02 결혼기념
이준혁 사도요한, 양주희 에스텔	2008.12.13 결혼기념
최지수 마르첼로, 권애린 젬마	2010.01.09 결혼기념

아름다운 커플의 기부

김정현 마르첼로, 정혜진 도미니카	2013.12.25 크리스마스 선물
송명훈 라파엘, 최승경 크리스티나	2014.02.10 2000일 기념
이기윤 세례자 요한, 홍지은 수산나	2014.02.08 100일 기념

고인의 아름다운 유산 기부

故 박명애 세실리아	2013.12.23 忌日

입학 축하 기부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09生 父 구성관 母 박혜은
김시원 미카엘	2007.09.17生 父 김동규 母 김수현
김준형	2014.03 외숙모 석효정
임보민 안나	2007.07.31生 父 임호철 母 김지현

대학 입학 축하 기부

강동연 안드레아	1995.10.22生 父 강진수 母 김윤경

졸업 축하 기부

권성훈 미카엘	2001.02.19生 父 권영민 母 송영미

첫 월급 기부

김다영 세실리아	1987.03.12生 父 김원택 母 하해선

멋진 팬들의 기부

블락비 피오	1993.02.02生

생일 축하 기부

김은경 그라시아	1968.02.10生
나동민 프란치스코	2003.02.13生 父 나민구 母 김은경
류지혜 크리스티나	1984.01.01生
최다솜 안젤라	2001.02.22生 父 최용호 母 김세희
최정은 멜라니아	1977.12.31生

신부님의 靈名 축일 기부

김민철 다니엘 신부님	02.07 축일
여현국 티모테오 신부님	01.26 축일

OBOS NEWS

유경촌 주교 새로운 이사장으로 부임

지난 2월 5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서품되신 유경촌 주교님께서 전임 이사장 김용태 신부의 뒤를 이어 본부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또한 2월 18일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최형규 신부가 부본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본부 홈페이지 새단장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가 새롭게 단장하여 본부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페이지 접속 환경에 따라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도 최적화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본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17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7기가 지난 2월 21일(금)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17기는 빈곤, 인권, 환경, 청년 등을 주제로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2월 4일(화)~18일(화)까지 14박15일 동안 캄보디아 반티프리업과 깜뽕꼬 마을에서 현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KOICA 민관협력사업 감사패 수상

지난 2월 18일, 본부가 KOICA로부터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본부는 KOICA와 협력하여 캄보디아에서 '권리와 자립에 기반을 둔 지체장애인 자력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 희망의 씨앗 심기 캠페인 실시

지난 2월 16일, 평생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을 보여주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5주기를 맞이하여 '2014 희망의 씨앗 심기'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본부장, 부본부장, 홍보대사인 탤런트 양미경씨,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추기경님의 생전 삶을 통해 보여준 생명에 대한 숭고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날 명동 거리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환우지원 현황

2014.1~3 단위: 만 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성명	병명	병원	지원금액
강○진(남/만31세)	B형 간염	고대구로병원	1,000
김○창(남/만53세)	간암	대구가톨릭대병원	900
강○혜(여/만20세)	유잉육종	국립암센터	1,000

I DO 희망의 씨앗 심기 생명나눔 제가 하겠습니다

풀칠하는 곳

KONOS 등록번호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기증형태 ☐ 뇌사 시 장기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중복 선택 가능

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이름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신청인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

이름 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 3,000원 ☐ 10,000원 ☐ 30,000원 ☐ 기타 원

출금일자 ☐ 매월 5일 ☐ 매월 25일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풀칠하는 곳

풀칠하는 곳 풀칠하는 곳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4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의씨앗

행복의씨앗

우편엽서

보내는사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03.09~2016.03.08

서울중앙우체국
제4151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 02.774.3488 F 02.776.7879 H www.obos.or.kr

Green printing-eco friendly printing with soy ink